



남원 도동지구대, 청소년 우범지역 탄력순찰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도동지구대(대장 이동권)는 관내 학교들의 방학에 따라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을 위해 주·야간시간대 가시적 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순찰지역은 청소년 탈선우려지역과 관내 물방개 워터파크 및 효산근도 등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등 탈선할 수 있는 장소를 순찰노선으로 정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거점근무를 병행했다. 특히, 우범지역에서 여성대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보순찰을 강화해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이동권 지구대장은 "청소년 탈선 우려지역 집중순찰을 통해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 피서철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합동점검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3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카메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해 무주군청, 여성·청소년 NGO 단체 등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근절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중화장실을 전파형 탐지장비로 1차 확인하고 렌즈형 탐지장비를 이용해 번기커버, 벽 나사 구멍, 비데 콘센트, 기타 부착물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시설 내 구멍 등 위협요소 발견시 안전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불법카메라를 차단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태형 진안경찰서장, 지역경찰과 소통·현장방문

진안경찰서(서장 김태형)는 6일 목목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지역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운일안반일안 여름과출소를 방문했다. 이번 여름과출소 현장방문은 지역경찰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근무환경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견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진안군 주천면 일대에서 최고 252mm 기습폭우가 내려 운일안반일안 주변 도로에 물이 넘치고 토사물이 흘러나와 차량 통행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자 지역경찰은 지역주민과 함께 교통지도 및 토사제거 하는 등 공동체치안을 펼쳤다.

김태형 서장은 "현장에서 수고하는 지역경찰 덕분에 진안이 안전하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찰 간 소통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 근무환경 개선 및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의 이웃사랑 실천 열기 뜨겁다”

군청 소속 반디축구회 장학금 기탁·무주군 재향군인회 참전유공자에 냉장고 전달

코로나19와 다가온 여름 날씨가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6일 무주군청(황인홍 군수)소속 공무원 축구모임 '반디축구회'는 회원들이 모은 회비로 관내 학생들을 위해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여한 반디축구회 이형재 회장은 "우리 반디축구회는 앞으로 무주 지역 사회에 많은 기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 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비 일부를 무주지역 사회에 환원해 군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동아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청 소속 축구동아리 반디축구회가 무주군 교육발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기탁금을 전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면서 "기탁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디축구회는 무주군청 공무원 25여명의 회원으로 구



성된 축구 동아리로 2014년부터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무주군 재향군인회도 이날 무풍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동인 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윤종덕 면회장, 최동철 무풍면장, 마을이장 등은 6.25 참전용사인 김재권 씨(무풍면 증산리)를 찾아 냉장고 1대를 기탁했다.

김동인 회장은 "힘들지만 더불어 함께하는 밝은 사회가 조성됐으면 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김제고 학생들과 청렴 캠페인

호국의 성지인 국립임실호국원(원장 김덕석)은 지난 8.5(수) 13시 김제고등학교 학생 60여 명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의 미래"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행사는 다가오는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빛을 회복하다 : 다시 빛나는 영웅'을 주제로 학생들이 호국영령의 숭고한 나라 사랑을 계승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렴 정신으로 미래를 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국립묘지 청렴 캠페인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청렴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기자

국립임실호국원, '학교에서 만나는 세계' 행사

국립임실호국원(원장 김덕석)은 지난 5일 한국치즈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만나는 세계(이하 학교만세) 행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치즈과학고는 올해 6월 국립임실호국원과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한 계기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학교만세 행사를 통해 6·25전쟁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6·25전쟁 및 전쟁으로 고통받던 우리나라를 도와준 22개 유엔참전국(6·25전쟁 전투지원국 16개국, 6·25전쟁 의료지원국 6개국) 중 전투지원국인 터키의 참전 내용과 문화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기자

남원경찰, 남원시와 협업체 장수 의자 설치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남원시와 협업체 학교 5가 등 관내 13곳을 선정, 총 18개의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의자(장수 의자)를 횡단보도 인근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그늘막을 활용해 설치되었다. 서승현 경비교통과장은 "신호대기중인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교통약자 및 노약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계기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온고을PMJF라이온스, 신덕면 소외계층 찾아 불고기 나눔

임실군 신덕면은 온고을 PMJF라이온스(회장 임춘봉)에서 지난 5일 신덕면사무소를 방문해 코로나 19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써달라며 불고기 반찬(500g) 50팩을 기부받아 50세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온고을 PMJF라이온스는 지난 7월에도 코로나 극복 성금 1,000만원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 지정 기탁하고, 그 후 원금으로 삼계탕을 준비해 980세대 소외계층 가정에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겨울에는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하여 연탄지원 봉사를 하는 등 소외계층 및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최고의 봉사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전달된 불고기 반찬은 도내 고교육을 불고기 양념을 하여 바로 익혀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관내 소외계층 50세대를 마을의 이장님을 통하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선정, 전달했다.



임춘봉 회장은 "지리한 장마와 코로나 19가 찾아들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생활에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분들이 불고기 반찬을 드시고 조금이나마 이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진안군보건소, 한의약 갱년기관리 교실 참가자 수료식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임옥)는 최근 한의약 갱년기관리 교실 참가자 13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 한의약 갱년기관리 교실은 6월부터 8월까지 8주 동안 생애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 등으로 생활과 건강에 불편을 호소하는 40 ~ 60대 중년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갱년기 예방교육과 심신안정을 위한 요가 및 걷기, 족욕 체험, 공예품 만들기, 생활속에서 건강식으로 만들 수 있는 약선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갱년기 심신안정을 위한 자석침과 탕약을 제공하는 등 한의약 관리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참가자의 90%가 넘는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만족도 결과를 반영해 2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아토피항생틴으로 문의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